

[시티 & 피처]

장애인 사망 이후에도 LPG 가격 부당 할인

광주 161명 무더기 적발

市·보건복지부 조사…6천여만원 국고 환수 조치

광주지역에서 장애인 사망 이후에도 LPG 가격을 부당할인 받아온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 2003년 이후 광주지역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장애인 사망 이후에도 LPG 할인을 받아온 16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당 할인받은 금액은 6천 93만6천원으로 1인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은 경우 100만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사망 이후 가

족 등이 별 생각 없이 한 두 차례 할인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상습적으로 부당 할인을 받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 할인받은 금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는 안내문과 고지서를 해당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시와 복지부는 이에 앞서 환수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LPG 세금인상분을 월 250ℓ 한도내에서 ℥당 200원씩 재정에서 지

원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장애인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이 지난해부터 지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장애 1~3급 LPG 승용차로 한정됐고 지원기간도 내년 말로 끝난다.

시 관계자는 “전산관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같은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투명한 관리를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 해 말 기준 5만7천898명, LPG 지원 대상 차량은 7천30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할머니들의 털기 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주최한 ‘제11회 노인체조경연대회’가 9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전남지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광주·전남 10개 단체에서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우승은 무안군 도대보건진료소팀이 차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구 재개발지역

방화 추정 잇단 화재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동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52건으로 이중 14건이 방화로 추정돼 전체 27%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주시 전체 방화건수 30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화가 주로 발생한 지역은 동구 재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주한 빈집에 노숙자와 비행청소년 등이 드나들다 불을 지르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인현주기자 ahj@

광주시, 재개발 보상 갈등 ‘불똥’ 골머리

주민들 주공측에 추가보상 촉구

시장 관사·행사장 등 3년째 시위

광주시가 주택공사와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 간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주공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양립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됐지만 사업시행자인 주공측과 7세대 주민들이 보상절차와 보상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일부 입주민의 최고 보상액이 3.3㎡(1평) 당 1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자신들은 평당 200여만원만 보상받았다며 주공 측에 추가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말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재개발 현장을 물론 광주시청사와 시장관사가 있는 S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소복을 입거나 피켓,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죽불시위를 벌여왔다.

이 때문에 S아파트 주민들은 이들의 아파트 접근을

막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에 불법시위 금지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국제행사인 제7회 광주비엔날레와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행사장 주요 인사 출입구에서 상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여 도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손모씨는 “주공이 직접 당사자지만 광주시가 재개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며 “삶터에서 죽어난 처지에서 시위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느냐”고 말했다.

주공측은 “보상협상을 떠나 주민들이 광주시장 관사와 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없는 시청을 압박해 주공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정 업무에 지장을 주고 광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자용품 도깨비 시장·무상 수리 서비스…

전자의 거리, 충장축제 ‘추억의 이벤트’

트랜지스터 시대의 아련한 추억을 담고 있는 전자의 거리가 ‘충장축제’ 기간 동안 추억의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단법인 전자의 거리(대표 송양호)는 오는 11일까지 매일 오후 4시 금남상가 앞 특설매장에서 전자용품 광장시장(도깨비 시장)을 열고 회원사가 보유한 희귀 전자제품과 용품들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추억찾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깨비 시장에는 추억을 담은 희귀 전자제품 등이 등장해 고객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반도상가 앞 특설 전시 무대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추억의 노래방’ 행사가 펼쳐진다. 7080세대들의 낭만을 노래해 70·80이라는 추억의 점수를 획득한 참가자에게는 전자의 거리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호남 최대 전자 상가의 추억을 담고 있는 전자의 거리에서 과거의 향수도 느끼고 전자제품도 고치는 ‘1석 2조’의 이벤트도 준비된다.

고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무상 수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전 3사와 중소업체 기술팀, 전자의 거리 기술팀이 연합해 펼치는 무상 수리 서비스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이용 고객들은 1만원 이상의 부품 실비만 부담하면 무상으로 가전 제품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 기후변화대응 사진전

광주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기후변화대응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기후변화 요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위험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오는 31일에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세미나’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전시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CGI센터 건축설계 공모

유탑엔지니어링 작품 당선

광주를 문화콘텐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인 ‘광주 CGI(컴퓨터영상이미지)센터’ 건축설계 현상공모에서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작품<조감도>이 당선작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9일 “국비 170억원 등 340억원을 들여 오는 2011년 완공될 광주CGI센터 건축설계경기에서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대표 김종일)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당초 13개 업체가 등록했고, 최종적으로 2개 작품이 경합을 벌였다.

주요 시설로는 제작 스튜디오와 모션캡쳐 스튜디오, VR(가상현실) 스튜디오 등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공간을 갖추게 된다. 이 곳에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유망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좋은보정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정기

본점 (광주광역시 동구 신동면)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광원면)
(062) 227-9970

한국문화의 대표 상품, 김치!
김치를 오감으로, 예술로, 체험으로 만나는
여가가 있는 김치문화박물관으로 초대합니다!

한국문화
한국문화박물관

광주 김치축제

2008. 10. 15(수) ~ 19(일)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입구

www.kmwm.or.kr